

9월 IT수출 122.4억 달러, 사상 최대 64.3억 달러 흑자기록

9월 IT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0.8% 증가한 122.4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1년 만에 수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지난 '96년 IT산업통계작성 이후 역대 3번째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07.10월(62.9억 달러 흑자)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인 64.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9월 IT수입은 전자부품 35.9억 달러, 컴퓨터 및 주변기기 6.1억 달러 등 주요 품목의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13.6% 감소한 58.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는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09년		2008년		
	9월	1~9월	9월	1~9월	
수출	전체 산업	349.7 (Δ6.6)	2,613.4(Δ20.6)	374.3 (27.6)	3,289.4 (22.6)
	IT 산업	122.4 (0.8)	863.6(Δ17.0)	121.4 (9.2)	1,041.0 (11.3)
수입	전체 산업	296.0(Δ25.1)	2,292.7(Δ33.3)	395.3 (45.4)	3,437.5 (34.1)
	IT 산업	58.1(Δ13.6)	451.6(Δ22.5)	67.3 (20.8)	582.9 (16.3)
무역수지	전체 산업	53.7	320.7	Δ21.0	Δ148.1
	IT 산업	64.3	411.9	54.1	458.1

주요 3대 수출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6억 달러, 22.3%)는 PC시장 회복과 국내 비교 우위 품목인 DDR3의 채용비중 확대로 '08.6월 이후 15개월 만에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D램은 경쟁 업체의 부진 속에 PC시장 회복과 국내 비교 우위 품목인 DDR3의 채용 비중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10.1% 증가한 9.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및 메모리카드 등 전망 시장 회복으로 전년 동월대비 245.5% 증가한 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 D램 가격(1Gb, \$): ('09.1)0.81→(2)0.88→(3)0.88→(4)0.91→(5)1.1→(6)1.2→(7)1.2→(8)1.4→(9)1.6
- * 낸드 가격(16Gb, \$): ('09.1)2.4→(2)2.7→(3)3.2→

(4)3.7→(5)4.3→(6)4.1→(7)4.0→(8)4.2→(9)4.5

디스플레이패널(26.3억 달러, 4.2%)은 중국 등 해외 각국의 수요 진작 정책과 이에 맞물린 TV와 같은 전방 세트 시장 성장으로 지난달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 * 패널수출증감률(%) : ('09.1)→40.8→(2)→24.1→(3)→12.7→(4)→8.6→(5)→7.2→(6)4.0→(7)5.1→(8)7.8→(9)4.2
- * 낸LCD가격(TV용 Full HD, 42인치, \$) : ('09.1)325→(2)325→(3)323→(4)320→(5)320→(6)333→(7)350→(8)350→(9)350

휴대폰(25.2억 달러, Δ22.5%) 수출은 글로벌 시장 축소와 신흥시장 진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 비중 확대로 감소하였다.

【 '09. 9월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

(단위 : 억 달러)

구분	반도체	패널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액(전년 동월대비 증가율)	36(22.3%)	26.3(4.2%)	25.2(Δ22.5%)
IT수출 비중	29.4%	21.5%	20.6%

국가별로는 중국(홍콩포함) 55.2억 달러, EU 15.5억 달러, 미국 13.3억 달러, 일본 6.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였다.

향후 IT수출은 주요국의 경기 부양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른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패널은 가격 안정화, TV 등 세트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반도체는 윈도우 7 출시, DDR3 D램의 채용 비중 확대로 4/4분기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다만, 환율의 절상 가능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은 수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도체 : 36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2.3% 증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2.3% 증가한 36억 달러로 '08.6월 이후 15개월 만에 성장세를 회복하였고, D램(9.4억 달러, 10.1%) 수출은 경쟁 업체의 부진 속에 PC시장 회복과 국내 비교 우위 품목인 DDR3의 채용 비중 확대에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한편, 낸드플래시(6.0억 달러, 245.5%) 수출은 스마트폰 및 메모리카드 등 전망 시장의 회복으로 세 자릿수 증가세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19.7억 달러, 48.1%), 미국(2.4억 달러, 4.7%) 등은 수출이 확대되었고, 일본(2.9억 달러, △2.8%), EU(2.1억 달러, △6.2%)는 감소율 완화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8	9	10	11	12	'09.1	2	3	4	5	6	7	8
반도체	29.4	25.2	19.4	15.3	15.0	15.4	18.1	21.1	24.0	25.1	27.0	28.8	36.0
	(△10.5)	(△26.1)	(△44.1)	(△49.9)	(△46.9)	(△40.6)	(△38.4)	(△26.2)	(△22.1)	(△23.0)	(△15.6)	(77.2)	(22.3)
메모리	14.5	11.4	9.1	7.3	7.2	7.9	8.7	9.8	11.5	12.4	13.3	14.7	19.9
	(△24.2)	(△39.5)	(△50.3)	(△53.8)	(△48.9)	(△42.4)	(△45.2)	(△37.6)	(△32.8)	(△28.9)	(△23.3)	(△12.7)	(37.0)
D램	8.5	6.2	5.1	4.8	4.4	4.4	5.0	5.3	6.3	6.9	8.1	8.7	9.4
	(△8.0)	(△23.8)	(△31.7)	(△29.4)	(△36.8)	(△38.5)	(△41.2)	(△37.4)	(△34.0)	(△33.5)	(△25.0)	(△20.6)	(10.1)
낸드	1.7	1.3	1.1	0.8	1.0	1.1	1.3	1.4	1.7	1.6	1.6	2.0	6.0
	(△47.3)	(△56.0)	(△66.4)	(△78.5)	(△65.4)	(△60.2)	(△42.5)	(△37.6)	(△30.6)	(△31.9)	(△31.5)	(△2.4)	(245.5)

*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

휴대폰(부분품 포함) : 25.2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2.5% 감소

휴대폰 수출은 글로벌 휴대폰 시장 위축과 신형시장 진출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생산 비중 확대에 감소세 보였으나, 국내 업체는 폴더치폰, 고화소 카메라폰 등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의 확대와 유통망 확대를 통한 신형 시장 공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 향상 중점을 두었다.

* 휴대폰 시장점유율(%),SA : ('08.12분기)24.7→(3분기)24.6→(4분기)26.7→('09.1분기)28.0→(2분기)30.1

지역별로 보면 일본(0.8억 달러, 146.7%)은 국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일본 시장 공략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를 보였고 반면, 미국(5.8억 달러, △30.8%), 중국(홍콩 포함, 8.6억 달러, △11.8%), EU(4.7억 달러, △27.3%), 중동(0.4억 달러, △56.9%) 등은 감소하였다.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9	10	11	12	'09.1	2	3	4	5	6	7	8	9
금액	32.5	37.6	24.0	18.3	21.9	23.7	23.9	24.4	24.9	25.1	26.2	22.8	25.2
(증감률)	(39.6)	(13.6)	(△25.5)	(△17.4)	(△21.7)	(1.4)	(△21.3)	(△18.4)	(△11.1)	(△7.4)	(△11.3)	(△17.9)	(△22.5)

패널(부분품 포함) : 26.3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4.2% 증가

패널 수출은 각국의 수요 진작 정책과 맞물린 TV와 같은 전망 세트 시장의 성장으로 지난달에 이어 4개월 연속 수출 증가 하였다.

* LCD 가격(TV용 Full HD, 42인치, \$) : ('09. 3)323 →(4)320→(5)320→(6)333→(7)350→(8)350→(9)350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9	10	11	12	'09.1	2	3	4	5	6	7	8	9
금액	25.3	24.1	18.5	12.3	12.4	15.0	19.4	20.2	21.1	22.4	25.0	25.5	26.3
(증감률)	(27.4)	(3.6)	(△18.6)	(△41.2)	(△40.8)	(△24.1)	(△12.7)	(△8.6)	(△7.2)	(4.0)	(5.1)	(7.8)	(4.2)

칼라 TV(부분품 포함) : 5.4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5% 감소

칼라 TV수출은 '09.1월 48.7%의 감소를 기록했으나 해외 생산을 위한 TV부분품(4.5억 달러, 1.6%)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감소율이 2.5%로 완화되었고 국내 업체들은 프리미엄 제품의 지속적 출시와 주요 유통 채널에서의 판매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